

黃疸의 方劑에 關한 文獻的 考察

梁 起 鎬*

〈目 次〉

- I. 緒論
- II. 研究資料 및 方法
- III. 研究內容
- IV. 考察
- V. 結論

I. 緒論

黃疸은 目黃, 身黃, 小便黃 等, 鞏膜, 皮膚 또는 粘膜이 黃色으로 着色되는 것으로서 매우 普遍的으로 一般에게 알려져 있는 症狀名이다. 黃疸은 多樣的 病症의 共通化된 症狀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 分類가 여러 가지로 행해질 수 있다. 西洋醫學的 側面에서는 血中の 膽汁色素가 增加하여 皮膚나 可視粘膜에 黃染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正常에서의 血清 총 빌리루빈치가 1mg/dl 以下이나 3mg/dl 以上이 되지 않으면 皮膚나 可視粘膜에 黃染

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고 1mg/dl-3mg/dl 까지의 增加를 潛在性黃疸이라고 한다.⁸⁾ 즉 黃疸을 膽汁色素의 代謝異常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疾患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본다. 韓醫學的으로 볼 때 黃疸이라는 疾患의 영역은 대단히 넓고 包括的이다. 그리고 그 分類내에도 다시 黃疸이라는 名稱이 등장하는 등 매우 包括的이고 複雜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며 그 辨證 또한 多様하다. 여기 이 글에서는 黃疸이라는 큰 테마를 가지고서 결국 全體的으로 照鑑해 보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本人은 黃疸에 關한 文獻을 중심

* 圓光韓醫大 大學院

으로 그 原因과 症狀 및 특히 方劑를 分類하고 整理하여 考察함으로써 臨床 研究에 도움이 되고자 본 研究를 시도 하는 바이다.

II. 研究資料 및 調查方法

1. 研究資料

연구자료는 內經, 萬病回春을 비롯하여 歷代 重要醫書로부터 現代의 中國 및 韓國 書籍에 이르기까지 古典 및 現代文獻 총 33種으로 하였다.

- 1) 王冰編註:黃帝內經
- 2) 龔延賢 外:萬病回春
- 3) 陳昭遇 外:太平聖惠方
- 4) 許浚:東醫寶鑑(雜病篇)
- 5) 李梴:編註醫學入門
- 6) 申天浩:病證診治
- 7) 張伯輿:中醫內科學
- 8) 金定濟 外:東醫 肝系內科學
- 9) 張仲景:金 要略
- 10) 巢元方:巢氏諸病源候論
- 11) 吳錫黃 外:聖濟總錄
- 12) 朱丹溪:丹溪心法附餘
- 13) 康命吉:濟衆新篇
- 14) 陳無擇:三因方
- 15) 吳謙:醫宗金鑑
- 16) 驪江出版社出版局:漢方內科學
- 17) 朴炳昆:漢方臨床40年
- 18) 蔡仁植:漢方臨床學
- 19) 柳志允:中醫臨床特講
- 20) 孫淑英:問答式 漢方內科學
- 21) 黃文東:實用中醫內科學

- 22) 矢數道明:漢方處方解說
- 23) 姜允皓:東醫臨床內科
- 24) 王肯堂:六科准繩
- 25) 鄭津牟:中醫處方解說臨床應用
- 26) 黃度淵:方藥合編
- 27) 辛民教:臨床本草學
- 28) 陸昌洙:現代方藥合編
- 29) 汪昂:國譯醫方集解
- 30) 黃度淵:醫宗損益
- 31) 張仲景:仲景全書
- 32) 樓英:醫學綱目
- 33) 原案徵 中醫學院:中醫臨床手冊

2. 調查方法

연구자료를 중심으로 黃疸門, 五疸門, 肝膽系 부분에서 黃疸에 關계된 기록을 발췌하고 이것을 분석하여 病因과 症狀 및 方劑를 분류하고 정리하였다.

III. 本論

1. 黃疸의 定義

黃疸이란 顔面과 眼球 齒垢 爪甲 또는 全身이 黃色으로 變하고 小便色이 黃赤色을 띠며 安臥하기를 좋아하고 혹은 飲食을 攝食하고도 虛飢證이 恒常 있는 病이다.

內經¹⁾의 素問 平人氣象論에서는 尿黃赤 安臥者 黃疸 已食如饑者 胃疸 目黃者 曰 黃疸 이라하였고, 靈樞 論疾診尺篇에서는 身痛而色微黃 齒垢黃 爪甲上黃 黃疸也 라고 하였다.

太平聖惠方³⁾의 解說 中에는 다음과 같은 黃疸의 正義에 關한 說明이 나온 다. “食已卽如飢 其身體面目爪甲牙齒及小便盡黃而欲安臥 或身脈多赤多青皆見者 必發寒熱 此皆疸也”

“醫學入門⁵⁾에서는 濕熱薰蒸 血熱土色上行面目 延及爪甲 身體俱黃 黃卽疸也”라고 表現하였다. 또한 丹溪心法附餘에서는 “五疸者 周身皮膚并眼 如梔子水染”이라고 說明한다.

病症診治⁶⁾에서는 “黃疸이란 皮膚, 鞏膜, 粘膜 등이 增加된 빌리루빈의 沈着으로 말미암아 누렇게 물드는 現狀을 말한다.”라고 西洋醫學的 概念을 使用하여 說明하고 있다. 韓方臨床學에서는 “目黃, 尿黃, 身黃의 證을 黃疸이라 한다.”고 간단명료하게 表現하고 있다.

中醫內科學⁷⁾에서는 “黃疸 又稱 黃是以目黃, 身黃, 小便黃爲主證의 病症”라고 中醫臨床特講¹⁹⁾에서는 “黃疸은 肝臟疾患의 한 症狀인데 肝膽의 疏泄作用이 失調된 탓으로 膽汁이 溢出함으로써 發生하는 것이다.”라고 表現하고 있다.

또한 東醫肝系內科學⁸⁾에서 表現하는 西洋醫學的 正義는 다음과 같다. “黃疸이란 血中의 빌리루빈이 增加하여 皮膚나 可視粘膜이 黃染되는 것을 말하는데 正常에서는 血清 總 빌리루빈 値는 1mg/dl以下이나 3mg/dl以上이 되지 않으면 皮膚나 可視粘膜의 黃染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1-3mg/dl까지의 增加를 潛在性 黃疸이라 한다. 黃疸은 빌리루빈의 代謝異常으로 나타

나는 일종의 症狀이다.”

2. 病因, 分類, 및 症狀

東醫學에서 말하는 黃疸은 넓은 의미의 黃疸과 좁은 의미의 黃疸 두 가지로 分類해 볼 수 있다. 여러 文獻들을 볼 때 黃疸이라는 테마 속에서의 分類에 黃疸이라는 名稱의 소주제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큰 의미의 차이는 없고 보다 細分해 들어가다 보니 이러한 語彙의 重複과 함께 여러가지 分類法이 생겨났다고 생각된다. 여기 이 부분에서는 여러 醫家들이 多樣한 책들 속에서 提示하고 있는 多樣한 分類 및 病因과 症狀에 關하여 有機的으로 說明하고자 한다. 各各의 책들의 내용을 整理해 나가는 方向에서 서술해가고자 한다.

正統金⁹⁾ 要略⁹⁾

“風寒相搏 食穀卽眩 穀氣不消 胃中苦濁 濁氣下流 小便不通 陰被其寒 熱流膀胱 身體盡黃 名曰穀疸. 額上黑 微汗出 手足中熱 薄暮卽發 膀胱急 小便自利 名曰女勞疸 腹如水狀 不治 心中懊 而熱 不能食 時欲吐 名曰酒疸”, “腹滿 舌黃 躁不得睡 屬黃家”, “穀疸之爲病 寒熱不食 食卽頭眩 心胸不安 久久發黃 爲穀疸”, “黃家日晡所發熱 而反惡寒 此爲女勞得之”, “酒黃疸 心中懊 或熱痛”

巢氏諸病源候論¹⁰⁾

黃病候, 癖黃候, 黃候, 五色黃候, 風黃候, 因黃發血候, 因黃發痢候, 因黃發

痔候, 因黃發癍候, 因黃發病候, 小便澁兼石淋候, 因黃發吐候, 黃疸候, 酒疸候, 穀疸候, 女勞疸候, 黑疸候, 九疸候, 胞疸候, 風黃疸候, 濕疸候, 急黃候, 黃汗候, 犯黃候, 勞黃候, 腦黃候, 陰黃候, 內黃候, 行黃候 等等의 28候으로 分類하여 說明하고 있다.

聖濟總錄¹¹⁾

肝黃, 心黃, 脾黃, 肺黃, 腎黃, 鬼黃, 姦黃, 血黃, 人黃, 髓黃, 陰黃, 急黃, 氣黃, 癰黃, 白黃, 陰黃, 膽黃, 驚黃, 風黃, 走精黃, 酒黃, 雞黃, 蚰蜒黃, 火黃, 走馬黃, 房黃, 黑黃, 厭黃, 水黃, 瓜黃, 腸黃, 犢黃, 氣黃, 猪黃, 土黃, 蝦蟆黃 등의 36가지로 나누어 說明하고 있다.

太平聖惠方³⁾

“夫黃疸之病者 是酒食過度 臟腑熱極 水穀相併 積於脾胃 復爲風濕所搏 結滯不散 熱氣鬱蒸所爲也 故食已卽如飢 其身體面目爪甲牙齒 及小便盡黃 而欲安臥 或身脈多赤多青皆見者 必發寒熱” “夫虛勞之人 若飲酒多 進穀少者卽 胃內生熱 因大醉當風 入水 卽 身目發黃 心中懊痛 足脛滿 小便黃 面發赤斑 若下之 久久變爲黑疸 面目黑 心中如蒜狀 大便正黑 皮膚手足不仁 其脈浮弱 故知之酒疸也 其小便不利 復當心熱 及足下熱 是其證也” “夫穀疸之狀 食畢卽頭眩心 鬱不安 而發黃 由失飢大食胃氣衝熏所致 陽明病脈遲 食難 因飽 飽卽發煩目眩者 必小便難 此欲 = 爲穀疸” “夫黑疸之狀 若小腹滿 身體盡黃 額上 皮黑 足下熱 大便黑是也 夫黃疸酒疸女

勞疸 久久多變爲黑疸也” “夫風疸者 由風氣在於腑臟 與熱氣相搏 便發於黃 小便或赤 或黃 好臥而心振 面虛黑 名爲風疸也” “夫女勞疸之候 身目皆黃 發熱惡寒 小腹滿急 小便不利 因大勞大熱 不能保攝 房後入水所致也”

丹溪心法附餘¹²⁾

原因에 관하여 “疸不用分五, 同是濕熱” 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濟衆新篇¹³⁾

原因에 관하여 “凡病當汗不汗 當利小便而不利 及時行感冒 伏暑未解 宿食未消 皆發黃 時行瘟疫發黃” 와 같이 서술하고 있고, 分類 및 症狀에 관해서는 黃疸— 小便面目牙齒肢體如金 食已善飢 安臥懶動, 酒疸— 心胸懊 欲吐不食 足心熱 面發赤斑 鼻癰, 穀疸— 食已頭眩 腹脹, 女勞疸— 又名黑疸 額黑微汗 手足心熱 膀胱急 小便利, 黃汗— 身重發熱 汗出染衣 得於汗時水浴” 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三因方¹⁴⁾

原因에 관하여 “若論所因 外則風寒暑濕 內則喜怒憂驚 酒食房勞 三因悉備” 라고 서술하고 있고, 分類 및 症狀에 관하여는 “五種黃病卽 黃汗, 黃疸, 穀疸, 酒疸, 女勞疸 是也. 病者體腫, 發熱不渴, 狀如風水, 汗出染衣, 色正黃如柏汗 名曰黃汗 病者發黃 身面眼悉黃如金色 小便如黃柏汁 名曰黃疸 病者發黃 內熱 食則腹滿眩暈 穀氣不消 胃中苦濁 濁氣下流 小便不通 陰被其寒 熱流膀胱

身體盡黃 名曰穀疸 五疸惟酒疸變證最多 爲病則不特發黃 溢于皮膚 爲黑爲腫 流於清氣道中則眼黃鼻癰 女勞疸 二焦(上焦, 中焦)熱鬱故致發黃 下焦氣勝故額黑 上焦走血隨瘀熱行 大便 黑”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醫宗金鑑¹⁵⁾

病因에 관한 註 “黃土色也 土病即見之 土屬脾胃 脾爲陰土主濕 胃爲陽土主熱 故凡病疸皆爲濕瘀熱鬱也 行於外即必四肢苦煩身面發黃也 蓋其人素有濕熱外被風寒相搏 內爲女勞所傷 及食穀飲酒或與濕瘀 或與熱鬱 皆能爲是病也”

韓方內科學¹⁶⁾

“黃疸은 外因도 있고 內因도 있으며 땀을 내야할 때 내지 못하였거나 利尿시켜야 할 것을 利尿하지 못한데 原因이 있는 것이 있고, 또한 瘟疫性으로 전염된 것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誘因에 불과하고 原因은 모두 濕熱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는 濕熱의 實證과 虛證이 區分되어 있을 따름이다. 一般的으로 濕熱에 起因된 病은 黃疸外에도 많이 있으나 黃疸에서만 特徵的으로 나타나는 것은 色素이다. 그러므로 濕熱이 黃疸을 招來하는 것이 아니고 內部 어느 臟器와 連繫를 가진 조건하에서 黃疸이 發生된다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內部臟器에 結付하면 모든 色素를 주관하는 肝臟을 연상하게 되고 殘邪가 脾에 들어가면 黃色이 된다는 ‘難經’의 말을 상기하게 된다. 또는 濕은 脾의 소속이고 火熱은 肝膽의

生産이다. 그러므로 黃疸은 肝, 脾의 不和가 조성되고 濕熱이 蓄積, 潛伏되어 感觸만 하면 곧 發病할 形勢에 直面했을 때 文獻에 論證된 여러 要因들이 衝擊을 주어 發生하는 것이다. 黃疸病에는 黃疸, 酒疸, 穀疸, 黃汗, 女勞疸 等 五疸과 陰黃, 陽黃 그리고 黑疸, 黃珊 또는 傳染性 黃疸, 虛黃, 急黃 等으로 나눈다.”

萬病回春²⁾

“脈, 五疸實熱, 脈必洪數, 其或微, 症屬虛弱. 黃疸症者, 雖有五疸, 俱是脾胃水穀濕熱相蒸, 故發黃也. 胸腹飽悶, 面目俱黃, 小水短赤. 如 莢汁者, 就如 相似. 濕熱而生黃也.” “五疸者. 濕熱鬱蒸於脾也.”

韓方臨床學¹⁸⁾

“發病原因은 初期에 脾胃濕熱에 依하여 熱鬱濕蒸으로 進展되어 膽汁排泄에 惡影響을 끼쳐 身과 目이 같이 노랗고 小便色이 붉게 변한다. 여기에 濕熱이 교대로 蒸하면 陽黃證이 나타나고 濕이 寒을 따라 변하게 되면 陰黃證이 發生한다. 現代醫學에서는 溶血性黃疸, 肝細胞性黃疸, 膽道閉塞性黃疸 等으로 區分하고 있다.”

中醫臨床特講¹⁹⁾

原因－ 臨床的으로 陽黃과 陰黃 2가지로 大別하고 있는데, 兩者의 臨床症候는 차이가 있으나 어느것이나 肝膽의 疏泄作用이 失調된 탓으로 膽汁이 溢出함으로써 發生하는 것이다.

病證診治⁶⁾

原因— 本證은 時疫濕熱之邪를 感受 하거나 無節制한 酒食으로 脾胃가 損傷됨으로써 濕濁이 不化한 채 鬱滯되어 熱을 만들며, 이 熱이 中焦를 가로 막아 濕熱이 肝膽을 熏蒸하는 까닭에 膽汁이 常道를 벗어나 肌膚를 물들게 함으로써 病이 되는 것이다.

問答式 韓方內科學²⁰⁾

黃疸이 發生하는 原因은 두가지인데 外因은 時邪感受 氣傳染 飲食不節이며, 內因은 脾胃虛寒 內傷不足 七情所傷 異物阻滯 膽失常道와 有關하다.

實用中醫內科學²¹⁾

- 病因 : 1. 濕熱蘊結~ 又可分爲感受濕熱和飲食不節
2. 肝膽瘀熱
 3. 脾胃虛寒
 4. 熱毒熾盛
 5. 積聚

分類 및 症狀

(1) 陽黃

1) 濕熱兼表—黃疸初起, 輕度目黃或不明顯, 畏寒發熱頭重身疼, 倦怠乏力, 脘悶不飢, 小便黃, 苔薄, 脈浮弦或浮數

2) 熱重于濕—身目黃色鮮明, 發熱口渴, 心煩欲嘔, 脘腹脹滿, 飲食減退, 小便短赤, 大便秘結, 苔黃或黃燥, 舌質紅, 脈弦數或滑數

3) 濕重于熱—身目色黃而不光亮, 身熱不揚, 頭重身困, 胸脘滿, 食慾減退, 口渴不多飲, 便稀不爽, 小便短黃, 苔厚

或黃白相兼, 脈濡緩或弦滑

4) 膽熱瘀結—黃疸脇痛, 高熱煩燥, 口苦口乾, 胃納呆滯惡心嘔吐, 腹部滿脹, 大便秘結, 小便短赤, 苔黃燥, 脈弦滑數

(2) 陰黃

1) 寒濕陰 —黃色晦暗, 脘悶腹脹, 食慾減退, 大便薄, 神疲畏寒, 苔白, 質淡體珊, 脈沈細而遲

2) 肝鬱血瘀—身目發黃而晦暗, 面色黑, 脇下有 脹痛皮膚可見赤紋絲, 舌質紫或有瘀斑, 脈弦澁或細澁

3) 脾虛血虧—面目及肌膚發黃, 黃色較淡, 小便黃, 肢軟乏力, 心悸氣短, 納呆便, 舌淡苔薄, 脈濡細

(3) 急黃

1) 熱毒熾盛—黃疸急起 迅則加深 高熱煩渴 嘔吐煩作 脘腹滿脹 疼痛拒按 大便秘結 小便短少 煩燥不安 苔黃 舌邊尖紅

2) 熱毒內陷—起病急驟 變化迅速 身黃如金 高熱尿閉 血便血 皮下斑疹 或躁動不安 甚則狂亂 抽 或神精恍惚 甚則神昏 語 舌苔穢濁 質紅絳 脈弦細而數

3. 治方

治方에 관하여 살펴보았을 때 가장 광범위하게 使用되어 자주 등장한 처방은 茵陳五_八散으로 尤怡¹⁵⁾는 “此正治濕熱成疸者之法 茵陳散熱 五_八利濕瘀也”라고 하여 이 처방의 전반적 效能을 설명해 놓았다. 韓方處方解說²²⁾에서는 茵陳蒿湯(別名 茵陳湯)과의 비교 설명을 통하여 茵陳五_八散의 쓰임을

확실하게 밝혔는데 그 내용은 “茵陳五苓散은 黃疸, 發熱, 口渴, 小便不利는 本方(茵陳蒿湯)과 共通하고 있으나, 이 方은 輕症이며, 裏實의 證이 없는 者이다. 腹壁은 軟하고, 間或 胃部에 拍水音을 認定할 때가 있다.”와 같다. 東醫臨床內科²³⁾에서는 “濕이 熱보다 심해서 몸이 무겁고 가슴과 心窩部가 막혀 食慾이 없으며 大便이 軟하다면 利濕을 주로 하면서 거기에 淸熱法을 配合하는 方法으로 茵陳五苓散을 使用한다. 茵陳五苓散은 五苓散에 茵陳蒿를 加한 處方이며, 五苓散과 茵陳은 모두 濕熱을 尿로 하여 내보낸다. 茵陳五苓散은 黃疸이 있으면서 口渴하고 排尿障礙가 한층 심하며, 嘔氣하고 吐하면서 몸이 조금씩 浮腫할 때에 많이 쓰인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六科准繩²⁴⁾에서 王은 “治傷寒溫濕熱病 感冒後發爲黃疸 小便黑赤 煩渴發熱 不得安寧 此皆汗下太早 服藥不對證因 感濕熱病 以致 遍身發黃 嘗用茵陳五苓散治之甚效”라고 하였다. 中醫處方解說臨床應用²⁵⁾에서는 “本方은 脾胃濕熱의 대표 처방이다. 淸熱化濕의 茵陳蒿에 通陽利水の 五苓散을 배합한 것이다. ‘脾胃濕熱’이란 肝臟, 膽囊 등 輕度の 炎症으로 胃腸機能障害나 catarrh나 水分의 吸收, 排泄障害가 主가 된 것으로 濕熱 가운데 濕證이 熱證보다도 심한 상태이다. 主藥인 茵陳蒿로 利膽, 消炎하고 五苓散으로 消化管이나 조직내의 水分을 血中으로 끌어들이어 利尿에 의해 除去해서 下痢를 멎게 하여 胃腸機能障害를 緩解한다.”라고 하여 東西醫

學의 양쪽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총체적으로 效能을 설명해 주고 있다. 方藥合編²⁶⁾ 下統 46에 收載되어 있는 이 處方의 構成藥物은 「茵陳 五錢 澤瀉 猪 各 一錢半 白朮 赤茯苓 各 一錢二分 肉桂 五分」으로 되어 있다. 臨床本草學²⁷⁾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茵陳은 淸利濕熱, 退黃의 效能이 있고, 澤瀉는 利水, 滲濕泄熱의 效能이 있고, 猪은 滲濕利水の 效能이 있고, 白朮은 補中益氣, 燥濕利水, 固表止汗, 安胎의 效能이 있고, 赤茯苓은 分利濕熱, 行水の 效能이 있고, 肉桂는 溫中補陽, 散寒止痛의 效能이 있다. 韓方臨床40年¹⁷⁾³⁰⁾⁴⁾에서는 “通治方으로 黃疸 飲食無味하고 行步 倦怠한 데 쓴다.”라고 加減胃湯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方藥合編²⁶⁾⁴⁾에서는 “治黃疸 飲食無味 脈而濡”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처방의 構成藥物은 「茵陳 二錢 蒼朮 厚朴 陳皮 猪 澤瀉 白朮 白茯苓 白芍藥 各 一錢 藿香 半夏 大腹皮 山查肉 子 三稜 蓬朮 青皮 甘草 各 五分 薑 三 棗 二」로 되어 있다.¹⁷⁾ 蒼朮은 燥濕健脾, 祛風濕의 效能이 있고, 陳皮는 理氣健脾, 燥濕化痰의 效能이 있고, 厚朴은 化濕導滯, 行氣溫中의 效能이 있고, 半夏는 降逆止嘔, 燥濕去痰, 消散結의 效能이 있고, 白茯苓은 利水滲濕, 健脾補中, 寧心安神의 效能이 있고, 白芍藥은 柔肝止痛, 養血斂陰, 平抑肝陽의 效能이 있고, 藿香은 和中止嘔, 化濕酸濁의 效能이 있고, 大腹皮는 行氣寬中, 利水消腫의 效能이 있고, 山查肉은 消食肉積, 散瘀行滯의 效能이 있고, 子는 行滯消食, 肝氣去痰의 效能이

있고, 三稜은 破氣祛瘀, 消積止痛의 效能이 있고, 蓬朮은 行氣破血, 消積止痛의 效能이 있고, 甘草는 補中益氣, 清熱解毒, 潤肺止咳, 調和諸藥의 效能이 있고, 青皮는 疎肝破氣, 散積化滯의 效能이 있고, 薑은 發汗解表, 溫中止嘔, 溫肺止咳의 效能이 있고, 大棗는 補脾和胃, 益氣生津, 安神的 效能이 있다.²⁷⁾

金要略⁹⁾¹⁵⁾²⁴⁾³¹⁾에서 “穀疸之爲病 寒熱不食 食即頭眩 心胸不安 久久發黃 爲穀疸 茵陳蒿湯主之”와 같이 표현한 茵陳蒿湯은 역시 多用되는 處方이다. 東醫臨床內科²³⁾에서는 “茵陳蒿湯은 口渴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乏尿가 있으며 便秘하는 急性肝炎의 初期 또는 黃疸이 나오는 시기에 흔히 사용되는 처방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東醫寶鑑⁴⁾, 現代方藥合編²⁸⁾등에서는 역시 治穀疸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構成藥物은 「茵陳 三錢 大黃 梔子 各 一錢」으로 一貼하여 水煎服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大黃은 攻積導滯, 瀉火涼血, 行瘀通經의 效能이 있고, 梔子는 瀉火除煩, 泄熱利濕, 止血的 效能이 있다.(國譯)醫方集解²⁹⁾에서는 다음과 같이 方解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足陽明藥이다. 成無己는 말하기를 小熱은 涼하게 하여 이를 和하고 大熱은 寒하게 하여 이를 徹한다고 하였다. 發黃한 것은 濕熱이 甚한 것이니 大寒한 것이 아니면 능히 그 濕熱을 徹하지 못한다. 故로 茵陳으로서 君을 삼는다. 茵陳은 發汗도 하고 利尿도 하여 足太陰脾와 足陽明胃의 濕熱을 泄하므로 黃을 治하는 主藥으로 삼았다. 梔子는

臣을 삼고 大黃을 佐를 삼아서 앞과 뒤로 나누어 泄하게 하면 腹이 通利가 되어 解한다. 茵陳과 梔子는 능히 濕熱을 導하여 小便으로 나오게 하고, 大黃은 능히 濕熱을 導하여 大便으로 나오게 한다.” 中醫處方解說臨床應用²⁵⁾에서는 “本方은 濕熱의 黃疸에 대한 대표처방이지만 黃疸이 없어도 濕熱에 널리 사용하여도 좋다. 主藥은 清熱利濕 退黃의 茵陳蒿로 清熱解毒의 山梔子와 清熱瀉下의 大黃이 補助하고 있다. ‘肝膽濕熱’이란, 肝臟 膽囊 膽道系 등의 炎症에 수반되고, 膽汁의 生成 배설의 障害, 胃腸機能의 失調, 腸管內의 가스정체, 水分의 吸收排泄障害, catarrh, 自律神經系의 失調 등이 생긴 것이다. 茵陳蒿는 膽汁分泌를 뚜렷하게 높이고 膽汁中の 膽汁酸, 빌리루빈을 增加시킴과 동시에 膽囊收縮作用을 한다. 山梔子도 膽汁分泌를 促進하고 膽囊收縮에 작용하며, 實驗的으로 總膽管을 結紮한 동물의 血中 빌리루빈을 減少시킨다는 점에서 빌리루빈대사를 促進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 大黃은 膽汁의 流量을 增加시키지만 膽囊의 收縮作用은 없다고 한다. 단, 山梔子 혹은 茵陳蒿와 大黃을 組合하면 兩者의 利膽作用이 뚜렷하게 增強하여 膽囊收縮도 強해진다. 茵陳蒿 山梔子 大黃 모두 정도가 다른 消炎 抗菌 解熱作用을 갖고, 大黃은 HBs 抗原을, 茵陳蒿는 肝炎바이러스를 억제한다고 한다. 茵陳蒿 大黃에는 利尿作用이 있어 毒素나 代謝産物의 排泄을 촉진하며, 大黃은 瀉下作用에

의해 腸管內의 糞便을 제거하여 內毒素 등의 吸收를 방지한다. 山梔子에는 止血作用이 있다.”와 같이 처방해설을 제시하고 있다.

桂枝黃耆湯에 관하여 醫宗金鑑¹⁵⁾에서는 “諸黃家病 但利其小便 假令 脈浮者 當以汗解之 宜桂枝加黃耆湯主之”라는 金 要略⁹⁾의 原文에 대하여 “諸黃家病謂一切黃家病也 黃病無表裏證 熱盛而渴者 當清之 濕盛小便不利者 但當利其小便 假令 脈浮即爲在表 當以汗解之 宜桂枝加黃耆湯 於此推之 可知脈沈在裏當以下解之也”라고 註를 달아 설명하고 있고, 集註에서는 高世 의 언급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실어 놓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高世 曰 利小便乃 黃家一定之法 故 曰 諸病黃家 但利小便 然亦自有宜汗者 故 又曰 假令脈浮爲在表 當以汗解之 汗解之法 宜桂枝加黃耆湯 用桂枝湯以解肌 肌解即汗自出 加黃耆以助表 表和即榮衛亦通矣” 六科准繩에서는 “治黃疸脈浮而腹中和者 宜汗之 若腹滿欲嘔吐懊 而不和者 宜吐之 不宜汗”와 같이 설명하고 있고, 東醫寶鑑⁴⁾¹⁷⁾²⁸⁾ 등의 책에서 “黃汗을 治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藥物 構成은 「黃耆 二錢半 桂枝 芍藥 各 一錢半 甘草 一錢」로 되어있다. 黃耆는 補氣升陽, 固表止汗, 托毒排膿, 利水退腫, 治小兒百病의 效能이 있고, 桂枝는 發汗解肌, 溫通經脈, 通陽化氣의 效能이 있다.¹⁷⁾ 正統金 要略⁹⁾에 보면 “黃疸病의 脈象은 浮를 나타내고, 風邪가 濕邪보다 勝하기 때문에 땀으로 風寒을 疏散시키는 方法으로 治療한다. 처

방은 桂枝湯으로 營氣와 衛氣를 調和시켜 肌表의 風邪를 除去하고 黃耆를 加해서 汗腺을 實로 하고, 뜨거운 죽을 먹어 도움을 얻어 全身에서 조금씩 發汗시키면 肌表의 病邪는 사라지고, 裏濕은 있지만 下에서 小便에 의해 除去할 수가 있다.”와 같이 處方解를 提示하고 있다.

麻黃醇酒湯에 관하여 正統金 要略⁹⁾에서는 “‘千金’ 麻黃醇酒湯 治黃疸”이라 하고 또한 處方解에서 “‘千金’卷十에서는 이 處方을 ‘治傷寒熱出表發黃疸’로 하고 있다. 즉 外寒의 風寒, 濕熱이 表에 停留하여, 沮止되면 黃疸이 된다는 意味이다. 脈象이 浮를 나타내는 것은 發汗法으로 治愈해야하며 麻黃에 不純物이 섞이지 않은 술을 組合해서 藥力을 全身에 퍼지도록 하면 黃疸은 肌表에서 解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處方의 구성 藥物에 관하여 東醫寶鑑⁴⁾에 「麻黃 一兩 好酒 一升半 煮至半頓服 冬用酒 春夏用水」라고 기재되어 있다. 麻黃의 效能은 發汗解表, 宣肺平喘, 利水이다.²⁷⁾

茵陳四逆湯에 관하여 東醫寶鑑⁴⁾에는 “陰黃으로 몸이 싸늘해지고 저절로 땀이 나는 것을 치료한다.”라고 서술되어지고 있고, 東醫臨床內科²³⁾에는 “手足이 冷한 症狀이 심하다면 茵陳四逆湯을 쓴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다. 醫宗損益³⁰⁾⁴⁾에는 “(活人)治陰黃 肢體逆冷 自汗 茵陳一物湯加附子暑乾薑芍甘草灸 各 一錢” 「寶鑑」中醫處方臨床應用²⁵⁾에는 “效能은 溫化寒濕, 補陽退黃이며, 적응증은 寒濕의 黃疸(거무턱

탁한 黃疸, 元氣가 없다. 쉽게 疲困하다. 四肢의 冷 등이 나타나고, 舌質은 淡白, 舌苔는 白이 脈은 沈遲)이다. 本方은 寒濕의 黃疸에 대한 대표처방으로서 寒濕의 黃疸은 陰黃이라고도 부르며 濕熱의 黃疸인 陽黃과 구별되어 있다. 本方은 補陽祛寒의 四逆湯(附子, 乾薑 灸甘草)과 茵陳蒿를 組合한 것으로 四逆湯으로 全身의 機能, 代謝, 循環을 높이고 茵陳蒿의 利膽作用을 補助하는 것이다.” 附子는 回陽救逆, 補火助陽, 溫中止痛, 逐風寒濕邪의 效能이 있다.²⁷⁾

茯苓滲濕湯에 관하여 東醫寶鑑⁴⁾³⁰⁾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治濕熱黃疸 茵陳 二錢 赤茯苓 澤瀉 猪^各一錢 黃連 黃芩 梔子 防己 白朮 蒼朮 陳皮 青皮 枳實 各 五分” 黃連은 清熱燥濕, 清心除煩, 瀉火解毒의 效能이 있고, 黃芩은 清熱燥濕, 止血安胎의 效能이 있고, 枳實은 破氣行瘀, 燥濕化痰의 效能이 있고, 防己는 利水消腫, 祛風濕, 止痛의 效能이 있다.²⁷⁾

瓜蒂湯에 관하여 正統金匱要略⁹⁾³¹⁾이라는 책에 나타난 原文과 處方解는 다음과 같다. “治諸黃” “(處方解) 瓜蒂湯은 一物瓜蒂湯이라고도 말한다. 處方은 瓜蒂만을 사용하며, 맛이 쓰고, 기세있게 嘔吐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黃疸病을 앓아서 胸膈部가 답답하고 초조해지고 괴롭고, 吐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그 밖의 病狀이 없는 경우에는 이 藥湯으로 嘔吐시키고, 그 기세에 따라 小便이 잘 나오도록 하고, 心胸部의 邪氣를 除去한다.”

硝石礬石散에 관하여 正統金匱要略⁹⁾³¹⁾이라는 책에 나타나있는 金匱要略의 原文과 處方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黃家日晡所發熱 而反惡寒 此爲女勞得之 膀胱急 少腹滿 身體黃 額上黑 足下熱 因作黑疸 其腹脹如水狀 大便必黑 時 此女勞之病 非水也 腹滿者難治 硝石礬石散主之 「處方構成」 硝石 礬石 (태운다 各各 等量으로 한다.) 「處方解說」 硝石은 鹹味寒性으로서 血을 움직이고 效能은 瘀熱을 驅逐하는 일이다. 礬石은 酸鹹味로서 腎熱을 清除하고 水邪를 물리쳐 濕邪를 이긴다. 硝石과 礬石을 아울러 사용하여 腹部의 膨滿을 解除하고 潤下시킬 수가 있으며 濕熱을 大小便과 더불어 排除시켜 腹部의 膨滿은 그것으로 해서 消失 또는 減少한다. 매일 方寸지를 服用하는데 劑量은 비교적 적기 때문에 藥力은 별로 강하지 않다. 石藥은 胃를 損하므로 大麥의 汁과 섞어 服用하면 胃를 편하게 하고 脾를 강하게 할 수가 있다.”

小建中湯에 관하여 金匱要略⁹⁾³¹⁾에 나타나있는 표현은 다음과 같다. “男子黃 小便自利 當與虛勞小建中湯” 國譯醫方集解²⁹⁾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지고 있다. “(主治)溫中散寒한다. (處方)桂枝 生薑 各 三兩 芍藥 六兩 甘草 一兩 炙 大棗 十二枚 以上을 煎하고 飴糖一升을 넣어 微火로 풀리게 하여 服한다. 飴糖은 補虛健中, 緩急止痛, 潤肺止咳의 效能이 있다.(方解) 이는 足太陽과 足陽明의 藥이다. 六科准繩에서 말하기를 脾는 四臟의 中에 있

어 榮衛를 生育하고 津液을 通行한다. 한 번 不調和가 있으면 生育과 通行하는 바를 失하게 되니 반드시 此湯을 주어 中臟을 溫建하는 故로 建中이라 名한 것이다. 脾가 緩하려고 하면 급히 甘을 食하여 緩和시키는 故로 飴糖으로 爲君하고 甘草로 爲臣한 것이다. 桂枝는 辛熱하니 辛은 散하며 潤한다. 榮衛의 不足을 潤하게 하여 散하고 芍藥은 酸寒하니 酸은 收하며 泄한다. 津液의 不通을 收하여서 行하게 한 故로 桂芍으로 爲佐하고 生薑은 辛溫하고 大棗는 甘溫하며 胃는 衛의 源이고 脾는 榮의 本이다. 針經에 말하기를 榮은 中焦에서 出하고 衛는 上焦에서 出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衛가 陽이 되니 이를 益하자면 반드시 辛으로 해야하고 榮은 陰이 되니 이를 補하자면 반드시 甘을 쓴다. 辛甘이 相合하면 脾胃가 健運하여 榮衛가 通行한 故로 薑과 棗로서 爲使한다.”

梔子大黃湯에 관하여는 金匱要略⁹⁾⁴¹⁾⁵⁾²⁴⁾³¹⁾에는 “酒黃疸 心中懊 或熱痛 梔子大黃湯主之”라고 梔子大黃湯을 소개하고 있다. 正統金 要略⁹⁾에서는 “梔

子 大黃은 苦味寒性으로서 熱邪를 除去하고 枳實은 集積한 熱을 풀고 胸腹部에 滯積한 氣를 흩어지게 하고 香豉는 澁滯한 氣를 升散하는 作用이 있다. 酒黃疸의 환자는 鬱結이 熱이 되어 黃疸이 일어나므로 이 處方으로 實熱을 消除하는 것이 좋다.”와 같이 處方解說을 하고 있다. 處方構成藥物은 「梔子 大黃 各 二錢 枳實 一錢 豆豉 一合」으로 되어 있다. 豆豉는 疏散解表, 宣鬱除煩의 效能이 있다. 東醫臨床內科²³⁾에서는 “梔子和 大黃은 熱을 治療하면서 濕을 尿와 大便으로 하여 體外로 내보낸다. 배가 몹시 膨滿하고 大便이 단단하면 梔子大黃湯을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梔子柏皮湯에 관하여 東醫臨床內科²⁾³⁾에서는 “가슴이 답답하지만 배가 팽만한 症狀은 없고 口渴하며 嘔氣, 嘔吐, 하는 症狀이 있으면서 排尿障礙가 있다면 梔子柏皮湯을 쓸 수 있다.”와 같이 梔子柏皮湯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다. 처방의 구성 藥物은 「梔子 甘草 黃柏皮」이다. 黃柏은 淸熱燥濕, 瀉火解毒의 效能이 있다.²⁷⁾

〈표1〉 黃疸에 關한 證治표

類 別	辨 症			論 治		
	症 狀	脈 象	舌 苔	治 則	例 方	
陽黃	偏濕	黃色鮮明如橘子色, 胸悶食少, 腹脹, 小便不利, 口不渴	濡緩	白膩	祛濕醒脾	茵陳五苓散合平胃散
	偏熱	黃色鮮明如橘子色, 身熱煩渴, 心中懊而熱, 小便澀赤, 大便秘結, 腹滿而痛	弦數有力	黃膩	苦泄濕熱	茵陳蒿湯, 梔子柏皮湯, 梔子大黃湯
	兼表	黃色鮮明, 兼有發熱惡寒, 頭痛無汗	浮緊	白膩	宣化表濕	麻黃連翹赤小豆湯
陰黃	脾虛	黃色暗晦如烟熏, 神倦食少, 大便不實	遲而無力	舌淡	健脾濕化	茵陳朮附湯 兼有腎陽虛者, 茵陳四逆湯
	瘀阻	肝脾腫大, 肋下脹痛或刺痛, 腹脹, 面色黑黃	弦細或弦澀	舌質暗紅	消積化瘀	茵陳朮附湯合硝石礬石散 加三稜, 莪朮, 鱉甲, 紅花
	急黃	開始惡寒發熱, 五六天後迅速全身發黃, 小便黃如柏汁, 高熱昏迷, 煩躁語, 并可伴有血, 便血或皮膚出血點.	弦數或洪數	質絳或紫	清熱解毒	千金犀角湯合安宮牛黃丸兼有抽者加鉤藤, 石決明, 地龍, 全蝎
	虛黃	皮膚黃而干萎不澤, 鞏膜不黃, 小便清利, 四肢無力, 心悸眩暈	虛而無力	舌淡無華	補氣養營	人參養榮湯黃 <small>芩</small> 建中湯

〈표2〉 東醫寶鑑에 나와있는 黃疸에 關한 諸般處方들에 따른 藥物構成

茵陳五苓散	茵陳
加減胃苓湯	胃苓湯 - 桂枝, + 藿香, 半夏, 大腹皮, 山查子, 萊菔子, 三稜, 蓬朮, 青皮
茵陳湯	茵陳, 大黃, 梔子
桂枝黃芪湯	黃芪, 桂枝, 芍藥, 甘草
麻黃醇酒湯	麻黃
茵陳四逆湯	茵陳, 附子, 乾薑, 甘草
茯苓滲濕湯	茵陳, 赤茯苓, 澤瀉, 豬苓, 黃連, 黃芩, 梔子, 防己, 白朮, 蒼朮, 陳皮, 青黛, 枳實
瓜蒂湯	瓜蒂
硝石礬石散	硝石, 礬石
小健中湯	桂枝, 生薑, 芍藥, 甘草, 大棗, 飴糖
梔子大黃湯	梔子, 大黃, 枳實, 豆豉
梔子柏皮湯	梔子, 甘草, 黃柏皮
黃連散	大黃, 黃芩, 黃連, 甘草
茵陳三物湯	茵陳, 梔子, 黃連
茵陳散	茵陳, 梔子, 赤茯苓, 豬苓, 澤瀉, 蒼朮, 枳實, 黃連, 厚朴, 滑石
半溫半熱湯	半夏, 赤茯苓, 白朮, 前胡, 枳殼, 大戟, 甘草, 黃芩, 當歸, 茵陳, 生薑3苓
葛朮湯	葛根, 蒼朮, 枳實, 梔子, 甘草, 豆豉
當歸白朮湯	赤茯苓, 蒼朮, 枳實, 杏仁, 全草, 葛根, 甘草, 半夏, 當歸, 黃芩, 茵陳, 生薑3苓
茵陳梔子湯	茵陳, 大黃, 梔子, 枳實
牛黃散子	黑丑, 大黃, 檳榔, 甘草
穀疸丸	苦蔘, 龍膽草, 人蔘, 梔子
小溫中丸	白朮, 山查肉, 青皮, 蒼朮, 神麩, 香附子, 鍼砂
大溫中丸	香附子, 鍼砂, 陳皮, 蒼朮, 厚朴, 青皮, 三稜, 蓬朮, 黃連, 苦蔘, 白朮, 甘草
鍼砂丸	鍼砂, 香附子, 蒼朮, 神麩, 茵陳
紫金丹	膽礬, 黃蠟, 大棗
礬硝散	白礬, 硝石
石膏散	石膏, 滑石
秦艽飮子	秦艽, 當歸, 芍藥, 白朮, 桂皮, 赤茯苓, 陳皮, 熟地黃, 川芎, 小草, 半夏
腎疸湯	蒼朮, 升麻, 羌活, 防風, 稿本, 獨活, 柴胡, 葛根, 白朮, 豬苓, 澤瀉, 神麩, 人蔘, 甘草, 黃芩, 黃柏
芪陳湯	石膏, 黃芪, 赤芍藥, 茵陳, 麥門冬, 豆豉, 甘草
茵陳茯苓湯	茯苓, 茵陳, 豬苓, 滑石, 當歸, 肉桂
茵陳橘皮湯	陳皮, 白朮, 生薑, 半夏, 茯苓

黃疸의 方劑에 關한 文獻的 考察

茵陳附子湯	茵陳一物湯 + 附子, 甘草
茵陳薑附湯	茵陳一物湯 + 附子, 乾薑
茵陳吳茱萸湯	茵陳一物湯 + 吳茱萸, 附子, 乾薑, 木通, 當歸
茵陳附子乾薑湯	附子, 乾薑, 茵陳, 草豆蔻, 枳實, 半夏, 澤瀉, 白朮, 白茯苓, 橘紅
瘴疸丸	茵陳, 梔子, 大黃, 芒硝, 杏仁, 常山, 鱉甲, 巴豆相, 豆豉
茵陳瀉黃湯	葛根, 茵陳, 黃連, 梔子, 白朮, 赤茯苓, 白芍藥, 厚朴, 木通, 人蔘, 木香
濟生茵陳湯	茵陳, 大黃, 梔子
苦參散	葶藶子, 苦參, 黃連, 瓜薺, 黃栢, 大黃
穉鼻瓜瓜蒂散	瓜蒂, 丁香, 黍米, 赤小豆
如神散	苦匏子, 苦葫蘆子, 黃黍米, 安息香
退黃散	柴胡, 升麻, 龍膽草, 茵陳, 黃連, 黃芩, 梔子, 黃栢, 木通, 滑石, 甘草
日清飲	柴胡, 赤茯苓, 川芎, 桑白皮, 甘草
石膏茵陳湯	石膏, 山梔子, 茵陳, 木通, 大黃, 甘草, 瓜萸實
茵陳大黃湯	茵陳, 梔子, 柴胡, 黃栢, 黃芩, 升麻, 大黃, 龍膽草
必效散	葶藶子, 龍膽草, 梔子, 黃芩, 茵陳
退黃丸	青礬
綠礬丸	五倍子, 神麩, 鍼砂, 綠礬
褪金丸	鍼砂, 香附子, 蒼朮, 白朮, 陳皮, 神麩, 麥芽, 厚朴, 甘草
四寶丹	生米, 茶葉, 黃土, 黑炭
棗子綠礬丸	綠礬, 蒼朮, 厚朴, 陳皮, 神麩, 甘草

〈표3〉 표2의 處方中 5회이상 出現한 藥物들의 效能

藥 物	回 數	效 能
茵陳	20	清利濕熱, 退黃
甘草	18	補中益氣, 清熱解毒, 潤肺止咳, 調和諸藥
梔子	17	瀉火除煩, 泄熱利濕, 止血
白朮	10	補中益氣, 燥濕利水, 固表止汗, 安胎
大黃	10	攻積導滯, 瀉火涼血, 行瘀通經
黃連	8	清熱燥濕, 清心除煩, 瀉火解毒
黃芩	8	清熱燥濕, 止血安胎
蒼朮	8	燥濕健脾, 祛風濕
赤茯苓	7	分利濕熱, 行水
枳實	7	破氣行瘀, 散積消痞
神麩	6	消食和胃
陳皮	6	理氣健脾, 燥濕化痰
半夏	6	降逆止嘔, 燥濕去痰, 消痞散結
附子	5	回陽救逆, 補火助陽, 溫中止痛, 逐風寒濕邪

IV. 考察

지금까지 살펴보아온 것과 같이 黃疸에 관한 治療는 黃疸이 그 原因에 따른 症狀에 따라서 여러가지 분류가 있고 여러 가지의 치료 방법이 紛紛하여 臨床에 있어서는 그 辨證이 혼란스럽지 아니하게 명확하게 행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黃疸의 발생과 관련된 견해들을 종합해보면 脾機能障礙와 濕熱, 濕熱과 寒濕의 鬱滯로 인한 膽汁排泄의 장애, 氣血의 不足과 陽虛가 기본적인 요인으로 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濕熱이나 氣血不足과 陽虛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에 관하여는 外部로부터의 濕邪나 疫氣의 침입, 술 또는 飲食의 과다한 섭취, 病으로 인

한 脾胃機能의 장애 등을 눈여겨 볼 수 있었다. 또한 七情도 黃疸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어진다. 어쨌든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誘因들에 불과하고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黃疸의 원인은 濕熱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단지 實證과 虛證의 구분이 있을 따름인 것이다. 歷代 醫家들이 여러 醫著에서 黃疸의 分類에 관한 다양한 意見을 제시하였듯이 黃疸의 상태는 대략적으로 원인에 따라 여러가지 症狀이 출현할 수 있다. 黃疸의 症狀이 물론 陽黃, 陰黃 그리고 病의 具體的인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조금씩 다른 症狀이 나타난다고는 하지만 공통적이고 특징적인 상태들이 있으니, 顔面과 眼球 齒垢 爪甲 또는 全身의 黃色化,

小便色黃赤, 嗜安臥, 飲食섭취 후에도 虛飢證이 남는 것, 全身이 무거우면서 나른한 것, 體重減少 등이 그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 治法은 역시 原因에 맞게 濕을 제거하는 것을 주로 하면서 陽黃이라면 淸熱利濕, 陰黃이라면 脾陽이나 氣血을 도우면서 濕을 제거하는 방향에서 각각 治療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使用된 主要 藥物로는 「표3」에 나타난 바와 같이 茵陳, 甘草, 梔子, 白朮, 大黃, 黃連, 黃芩, 蒼朮, 赤茯苓, 枳實, 神麴, 陳皮, 半夏, 附子 등이며 그 외에 使用된 藥物로는 芍藥, 豆, 飴糖, 蓬朮, 三稜, 黃柏皮, 薑, 大棗 등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 多用된 藥物을 살펴보면 茵陳이 20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甘草가 18회, 梔子が 17회로 많이 사용된 편이었고, 白朮, 大黃이 각각 10회, 黃芩, 黃連, 蒼朮이 각각 8회, 赤茯苓, 枳實이 각각 7회, 神麴, 陳皮, 半夏가 각각 6회, 附子が 5회의 順으로 사용됨이 나타났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黃疸의 治療에는 茵陳, 梔子, 黃連, 黃芩, 赤茯苓 등의 淸利濕熱하고 分利濕熱하는 藥物과 甘草, 白朮, 蒼朮, 陳皮 등의 補中益氣, 理氣健脾하는 藥物이 主藥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외에 散積消痞, 消食和胃, 降逆止嘔 등의 效能을 지닌 枳實, 神麴, 半夏 등이 胃腸管係에 作用을 하여 사용되어졌으며, 攻積導滯의 機能을 지닌 大黃 등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治方으로는 茵陳과 茯苓이 主藥으로

構成된 茵陳五苓散, 加減胃苓湯, 茵陳湯, 茯苓滲濕湯, 硝石礬石散 등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病因을 全體적으로 濕과 熱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風邪가 濕邪보다 勝하기 때문에 攄으로 風寒을 消散시켜야할 경우에는 桂枝黃湯을 사용하였고 또한 脈象이 浮를 나타내어 發汗法으로 治愈해야 할 경우에는 麻黃醇酒湯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陰黃으로 몸이 싸늘해지고 저절로 攄이 나는 경우에는 茵陳四逆湯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心胸部에 邪氣를 제거할 경우에는 瓜湯, 小便自利와 虛勞를 兼할 경우에는 小建中湯, 腹膨滿하고 大便이 단단할 경우에는 梔子大黃湯, 배가 膨滿한 증상은 없고 口渴하며 排尿障礙가 있으면 梔子柏皮湯을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다. 黃疸은 많은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症狀이며 臨床에서도 많이 접하나 잘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研究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結論

이상의 文獻을 고찰하며 조사한 결과, 黃疸은 方劑構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黃疸의 治療를 위한 方劑構成은 基本的으로 淸利濕熱, 補中益氣, 燥濕利水, 退黃하는 藥物을 君藥으로 하였다.
2. 淸利濕熱하는 藥物로는 茵陳 20회, 梔子 17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

- 고, 補中益氣하는 藥物로는 甘草 18회, 白朮 10회로 使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또한 茵陳과 五苓散이 합해진 茵陳五苓散이 가장 널리 一般的으로 사용되는 處方임을 알 수 있다.
4. 주요 處方으로는 茵陳五苓散 이외에 加減胃苓湯, 茵陳湯, 桂枝黃芪湯, 麻黃醇酒湯, 茵陳四逆湯, 茯苓

滲濕湯, 瓜蒂湯, 硝石礬石散, 小建中湯, 梔子大黃湯, 梔子柏皮湯 등이 사용되었다.

이상으로 黃疸의 方劑에 대하여 살펴 보았으며 앞으로 臨床應用에서 더욱 더 좋은 治療結果를 얻기 위해 많은 研究와 努力이 있어야 겠다고 思料된다.

參 考 文 獻

1. 王冰編註:黃帝內經 서울 高文社 pp.82-84 1974.
2. 龔延賢 外:萬病回春 서울, 一中社 pp.181 1991.
3. 陳昭遇 外:太平聖惠方 서울, 翰成社, pp.1688~1695 1979.
4. 許浚: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pp.342~352 1992.
5. 李挺)編註醫學入門 서울 崇文社 pp.302~309 1974.
6. 申天浩:病證診治 서울 成輔社 pp.316~319 1990.
7. 張伯臾:中醫內科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391~400 1988.
8. 金定濟 外:東醫 肝系內科學 서울 集文堂 pp.55~95 1983.
9. 張仲景:金 要略 서울, 醫學研究社, pp.310~324 1987.
10. 巢元方:巢氏諸病源候論 台中, 昭人出版社 pp.1~9
11. 吳錫黃 外:聖濟總錄 서울 翰成社 pp.181~195 1977.
12. 朱丹溪:丹溪心法附餘 서울 大星文化社 pp.298~303 1982.
13. 康命吉:濟衆新篇 서울 杏林書院 pp.194~197 1975.
14. 陳無擇:三因方 上海 文瑞書局 pp.388~397 1977.
15. 吳謙:醫宗金鑑 서울, 翰林社 pp.418~426 1976.
16. 驪江出版社出版局:漢方內科學 서울 驪江出版社 pp.73~78 1994.
17. 朴炳昆:漢方臨床40年 서울 大光印刷公社 pp.197~500 1974.
18. 蔡仁植:漢方臨床學 서울 大星文化社 pp.416~423 1987.
19. 柳志允:中醫臨床特講 서울 書苑堂 pp.94~103 1986.
20. 孫淑英:問答式 漢方內科學 서울 成輔社 pp.166~169 1991.
21. 黃文東:實用中醫內科學 北京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384~390 1986.
22. 矢數道明:漢方處方解說 大邱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1986.
23. 姜允皓:東醫臨床內科 서울 書苑堂出版社 pp.266~277 1990.
24. 王肯堂:六科准繩 서울 翰成社 pp.458~459 1975.
25. 鄭津牟:中醫處方解說臨床應用 서울 癸丑文化社 pp.387~389 1986.
26. 黃度淵:方藥合編 서울 여강출판사 pp.116~295 1993.
27. 辛民教:臨床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4.
28. 陸昌洙:現代方藥合編 서울 癸丑文化社 pp.534~577 1973.
29. 汪昂:國譯醫方集解 서울 大星文化社 pp.154~403 1984.

黃疸의 方劑에 關한 文獻的 考察

30. 黃度淵:醫宗損益 서울 醫藥社 pp.543~546 1976.
31. 張仲景: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pp.409~410 1984.
32. 樓英:醫學綱目 pp.1689~1692
33. 原案徵 中醫學院:中醫臨床手冊 香港 商務印書館香港分館 pp.70~71 1975